

企劃論文

# 조선후기 국경인식에 있어서 豆滿江·土門江·分界江 개념과 그에 대한 검토

이 강 원\*

I. 서론	IV. ‘土門江’ 및 ‘分界江’ 개념과 그에 대
II. 조선초 ‘豆漫투먼’ 및 ‘土門투문’의 개념 과 국경인식	한 검토
III. 조·청의 국경인식과 정계비 중 ‘土門’의 의미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 I. 서론

이 글은 조선후기에 백두산 및 두만강 지역과 관련하여 어떠한 국경인식이 존재하였으며, 그러한 인식이 발생한 배경과 논리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은 이른바 ‘間島問題’를 둘러싸고 한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고토회복주의적 주장들과 무관하지 않다. 『龍飛御天歌』에도 ‘土門’이 나오고 백두산정계비에도 ‘土門’이 나오니 경계는 두만강이 아닌 ‘土門江’이라거나, 조선후기 지도에 두만강과 별도로 ‘分界江’으로 표시된 강이 있으니 국경은 그것으로 해야 옳다거나, 정계비가 송화강의 지류인 ‘土門江’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정계비의 ‘土門’은 송화강의 지류 土門江을 의미한다거나 하면서, 이른바 ‘間島領有權’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한 시점에서 특수하게 형성된 인식에 기반 한 논

\*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학부 조교수, 인문지리학전공(haekong@chonbuk.ac.kr).

리를 통하여 그러한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

자료들을 검토해보면, 그러한 주장들은 이미 백두산정계비 설치 직후 조선의 지식인들에 의해 제기되었던 논리이고, 그러한 논리는 19세기 중반에 이르면서 쇠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으로부터 실측 지도가 도입되고, 19세기 중반을 전후하여 두만강 대안으로 이주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정확한 지리정보가 입수되기 시작하자, 그러한 인식은 쇠퇴할 수밖에 없었다. 1861년과 1864년에 간행된 <大東輿地圖>에 ‘土門江’이 나타나지 않고, 두만강 상류에 ‘分界江上流’라고 표시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sup>1)</sup>

이후 자신들의 개척지를 지키기 위한 이주자들의 논리가 개발되면서 ‘토문강’ 및 ‘분계강’ 개념은 부활하게 되었고, 이 지역에 대한 국제정치적 역학관계 속에서 이른바 ‘간도영유권’ 주장의 근거 자원으로 동원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먼저 조선초기의 국경인식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 후, 백두산정계비 설치를 전후하여 백두산 및 두만강 일대의 국경과 관련하여 어떠한 인식들이 있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이 지역의 국경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鴨綠江과 白頭山天池와 豆滿江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며, 그로부터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土門江’과 ‘分界江’이라는 개념이다. 먼저 조선초기의 ‘豆漫투먼’과 ‘土門투문’ 개념에 대한 검토로부터 출발하고자 한다.

## II. 조선초 ‘豆漫투먼’ 및 ‘土門투문’의 개념과 국경인식<sup>2)</sup>

### 1. 조선초 ‘豆漫투먼’과 ‘土門투문’의 개념

『龍飛御天歌』에 ‘豆漫투먼’, 『太祖實錄』 등에 ‘豆滿’으로 표기된 것은 여진어 ‘tumen’을 표시한 것이며, ‘萬’이라는 뜻이다. 『용비어천가』 제1권 4장에 기록된

- 
- 1) 물론, <大東輿地圖> 역시 정계비로부터의 석퇴와 목책이 두만강으로 이어진다거나, 布爾哈通河와 嘎呀河가 합류한 후 다시 두만강에 합류하는 하천을 分東江이라고 표현하는 등의 오류가 있으나, 이전의 지도들에 비해 개선된 지리적 정보에 근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 2) 자세한 내용은 李康源, 「조선 초 기록 중 ‘豆滿’ 및 ‘土門’의 개념과 국경인식」, 『문화역사지리』, 19권 2호(2007), 45-57쪽을 참조.

바에 따르면, ‘豆漫江(豆滿江)’은 이 여진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많은 물이 이에 이르러 합쳐지는 강(衆水至此合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용비어천가』에 ‘土門투문’으로 표기된 것은 ‘豆門’(『太祖實錄』), ‘杜門’(『制勝方略』)과 같은 것이며, 여진어 ‘tomon’을 표기한 것이다. 이 단어는 ‘穴’과 관련된 의미, 곧 ‘구멍’, ‘동굴’, ‘샘’, ‘맞닿린 구멍’, ‘움푹 파인 곳’, ‘협곡(水口; 石門)’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단어는 지형을 묘사하는 일종의 보통명사가 고유명사로 쓰인 것이다. 따라서 여러 곳에서 이 단어가 지명으로 나타날 수 있다.

여진어 ‘tumen’과 ‘tomon’은 중국어의 음가 제한으로 인하여, 둘 모두 ‘tumen’으로 발음되며, 그에 따라 중국에서는 ‘徒門(túmén)’, ‘土門(tǔmén)’, ‘圖門(túmén)’, ‘圖門(túmén)’ 등으로 표시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徒門’, ‘土門’, ‘圖門’, ‘圖門’ 등이 ‘萬(tumen)’과 그로부터 파생된 ‘豆滿江’이라는 의미 외에, ‘穴(tomon)’과 관련된 의미(구멍, 동굴, 샘, 맞닿린 구멍, 움푹 파인 곳, 협곡(水口; 石門))도 표시하게 되었다. 한편, 조선에서는 오늘날의 두만강에 대하여 계속 ‘豆滿(豆漫)’이라는 지명을 사용하였다. 백두산정계비 설치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土門’을 둘러싼 논란은 ‘土門’이라는 지명이 가진 이러한 배경을 전제해야만 정확히 이해될 수 있다.

## 2. 조선초기의 국경인식

『용비어천가』 제1권 4장은 ‘豆漫江투먼강’의 유로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그것은 오늘날의 두만강과 유로가 일치한다.<sup>3)</sup> 그러나 『용비어천가』에는 ‘豆漫江투먼강’이 국경으로서 기능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그와 관련해서는 『태조실록』의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義州에서 闔延에 이르기까지의 연강 천리에 고을을 설치하고 수령을 두어서 鴨綠江으로 국경을 삼았다. … 孔州[경흥]에서 북쪽으로 甲山에 이르기까지 읍을 설치하고 진을 두어… 천 리의 땅이 다 조선의 판도로 들어오게 되어 豆滿江으로 국경을 삼았다.<sup>4)</sup>

3) 위의 논문, 46~47쪽.

이상으로 보아 조선초기의 국경은 鴨綠江과 豆滿江(豆漫江)이었으며, 후자는 오늘날의 ‘두만강’과 같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용비어천가』 제1권 4장의 “그 정상 이 큰 못을 길러서(育), 남으로 흘러 鴨綠江이 되고, 북으로 흘러 蘇下江이 되며, 동으로 흘러 豆漫江이 된다”는 기록으로 보아 압록강과 두만강이 천지에서 흘러내리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世宗實錄』 「地理志」 咸吉道 吉州牧 慶源都護府 항목에 경원도호부의 四方 境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지만, 앞서의 기록과 달리 국경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사방 경계(四境)는 동쪽으로 바다에 이르기 20리, 서쪽으로 鏡城 豆籠耳峴에 이르기 40리, 남쪽으로 連海堀浦에 이르기 12리, 북쪽으로 公險鎭에 이르기 7백 리, 동북쪽으로 先春峴에 이르기 7백여 리, 서북쪽으로 吾音會의 石城基에 이르기 1백 50리이다.<sup>5)</sup>

조선초기에 金宗瑞(1390~1453년)에 의해 저술되고, 李鎰(1538~1601년)에 의해 증보된 전투 지침서인 『制勝方略』 역시 두만강을 따라 列鎭防禦 전술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압록강—백두산천지—두만강을 국경으로 상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을 통하여, 『용비어천가』에 한자로 ‘豆漫’이라 쓰고, 한글로 ‘투먼’이라 주음한 지명은 『태조실록』 및 『세종실록』의 ‘豆滿’과 같은 것이고, 오늘날의 ‘두만강’을 말하며, 이것이 조선초기에 압록강과 더불어 국경으로 인식되었고, 여진족은 이것을 ‘투먼(tumen)’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진어의 ‘tumen’이 조선의 국경과 관련이 있으며, ‘tomon’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太祖實錄』 8卷, 4年 12月 14日. “自義州至間延沿江千里, 建邑置守, 以鴨綠江爲界…自孔州迤北, 至于甲山, 設邑置鎭…延袤千里, 皆入版籍, 以豆滿江爲界.” 이하 『조선왕조실록』은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http://sillok.history.go.kr>)를 이용하였으며, 원문을 대조하였음.

5) 『世宗實錄』 「地理志」, 咸吉道 吉州牧 慶源都護府. “四境, 東距海二十里, 西距鏡城豆籠耳峴四十里, 南距連海堀浦十二里, 北距公險鎭七百里, 東北距先春峴七百餘里, 西北距吾音會石城基一百五十里.”

### III. 조·청의 국경인식과 정계비 중‘土門’의 의미

#### 1. 숙종대 양국의 국경인식

조선초기의 ‘압록강—백두산천지—두만강’을 국경으로 삼는다는 인식은 조선후기에 들어와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며, 그간 조선이나 명 또는 청이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었다. 문제가 있었다면 犯越의 문제 정도였다. 물론, 청이 강희 7년(1668, 현종 6년) 封禁政策 실시 이후 압록강—백두산—두만강 지역의 지리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답사를 시도하면서 조선 정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으나,<sup>6)</sup> 모두 철회되었다.

숙종 37년(1711) 渭原 사람 李萬枝의 犯越 살인사건을 계기로 조선 정부는 더 이상 청의 압록강—백두산—두만강 답사에 협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청의 입장은 다음과 같은 강희제의 지시(강희 50년, 1711)에서 알아볼 수 있다.

황제께서 大學士 등에게 말씀하시기를 “...混同江은 장백산 뒤에서 나와 船廠의 打牲鳥喇를 지나 동북쪽으로 흘러 흑룡강과 만나 바다로 들어간다. 여기는 모두 중국 지역에 속한다. 鴨綠江은 長白山에서 동남쪽으로 흘러나와 서남으로 향하여 봉황성과 조선국 의주 사이를 지나 바다로 들어간다. 압록강의 서북은 중국의 땅이고, 동남은 조선의 땅이니 강을 경계로 삼는다. 土門江은 장백산 동면에서 흘러나와 동남쪽으로 향하여 바다로 들어간다. 토문강의 서남쪽은 조선 땅이고, 강의 동북은 중국 땅이다. 역시 강을 경계로 한다. 이 곳은 명백하다. 다만, 압록강과 土門江 두 강 사이의 땅이 불명확하다. 전에 部의 관원 두 사람을 보내서 봉황성에 가서 조선인 李玩枝[李萬枝]사건을 會審하도록 하였고, 또 打牲鳥喇總管 穆克登에게 함께 가도록 파견하였는데, 그들이 가르침을 달라고 하였을 때, 짐이 비밀리에 하유하기를 “너희들이 이번에 가서 땅을 조사하여야 한다. 조선 관원과 함께 강을 따라 올라가거라. 만약 중국에 소속한 지방을 가게 되거든 조선의 관원과 함께 가고, 혹여 중국에 소속된 지방에 장애가 있어서 통행할 수 없는 곳에서는 너희들이 함께 조선 소속 지방을 가거라. 이 참에 끝까지 가서 상세히 살펴보고 변계를 밝히는 데 힘쓰고,

6) 『肅宗實錄』 5年 12月 12日; 11年 10月 9日; 17年 11月 16日.

와서 보고하여라” 했었다. 생각하건데, 그들은 저쪽(조선)이 출발하기 전에 가야 할 것이다. 이번에 조사하는 지방의 상황을 더욱 명백히 하도록 하라.”<sup>7)</sup>

강희제가 지도를 보면서 말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청은 이미 『盛京通志』를 간행한 상태였고, 프랑스 예수회 소속 선교사들의 건의에 따라 전국에 대한 지도제작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강희 49년(1709) 6월 25일에는 선교사들을 동북지방으로 보내 지도제작사업을 시작하였으며, 그 범위는 遼東, 豆滿江, 松花江에 이르렀다. 다음해 8월 27일에는 추가로 黑龍江 지역에 대해 지도제작사업을 시작하였다. 이들 두 지도제작팀은 1710년 12월 14일 측량결과를 지도로 만들어 북경에 보내왔다. 이 지도에서 압록강과 두만강 사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강희제는 1711년과 1712년에 목극등을 보내게 되었다.<sup>8)</sup>

이 글에서 강희제는 ‘鴨綠江—長白山—土門江’을 국경으로 보고 있으며, 오직 두 강이 발원하는 백두산 지역이 불분명하기에 조사를 지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강희제는 ‘압록강과 토문강 사이가 불분명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 그는 『성경통지』를 보았을 것이고, 또 위에서 언급한 지도를 보았다. 『성경통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長白山은 歌爾民商堅阿隣[고르민상젠아린]이며, …明一統志에 이르기를 옛 會寧府 남쪽 60리에 너비가 천 리에 걸쳐 있고 높이가 2백 리이며, 그 정상에 호수가 있으며, 둘레가 80리인데, 남류하여 鴨綠江이 되고, 북류하여 混同江이 되고, 동류하여 阿也苦江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阿也苦江이라는 이름이

7) 『康熙實錄』卷246, 50年 5月 己丑朔 癸巳(初 5日). “諭大學士等曰·混同江自長白山後流出, 由船廠打牲烏喇向東北流, 會與黑龍江入海. 此階系中國地方. 鴨綠江自長白山東南流, 向西南而往, 由鳳凰城·朝鮮國義州, 兩間入于海. 鴨綠江之西北, 系中國地方, 江之東南, 系朝鮮地方, 以江爲界. 土門江自長白山東邊流出, 向東南流入海. 土門江西南, 系朝鮮地方, 江之東北, 系中國地方, 亦以江爲界. 此處俱已明白, 但鴨綠江·土門江, 二江之間, 知之不明. 前遣部員二人, 往鳳凰城會審朝鮮人李玩枝事, 又派出打牲烏喇總管穆克登同往, 伊等請訓旨時, 朕曾密諭云, ‘爾等此去, 并可查看地方, 同朝鮮官沿江而上. 如中國所屬地方可行, 卽朝鮮官在中國所屬地方行, 或中國所屬地方有阻碍不通處, 爾等俱在朝鮮所屬地方行. 乘此便至極盡處, 詳加閱視, 務將邊界查明來奏.’ 想伊等已由彼起程前往矣. 此審地方情形庶得明白.” 王其渠(編), 『清實錄·鄰國朝鮮篇資料』(中國社會科學院 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 1987), 252쪽 재인용.

8) 中國測繪史編輯委員會, 『中國測繪史: 第2卷』(北京: 測繪出版社, 2002), 470~471쪽.

없으니 옛날과 지금의 칭호가 다른 것이다. 지금 따져보니 그 땅은 奉天府 永吉州 동남 1천 3백여 리에 있으며, 서남류하여 바다로 들어가는 것은 압록강이고, 동남류하여 바다로 들어가는 것은 土門江이며, 북류하면서 州城[영길주성]을 둘러 동남으로 나가면서 諾尼江[嫩江]을 받아들여 동으로 흐르다가 북쪽의 黑龍江을 받아들이고 남에서 烏蘇哩江을 받아들여 휘고 꺾이며 바다로 들어가는 것을 혼동강이라 한다. 도무지 阿也苦라는 이름은 없으니, 옛날과 지금의 칭호가 다르다.9)

이 내용에 따르자면, 鴨綠江, 混同江, 土門江은 모두 白頭山天池로부터 직접 흘러내린다. 실제로 그러할 경우, 국경은 백두산 정상에 있는 호수 한 가운데를 기점으로 압록강과 토문강(두만강)으로 삼으면 될 것이다.

그러나 1710년 12월 14일 강희제가 받은 지도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았다. 이 지도에 압록강, 백두산천지, 두만강이 단절되어 그려져 있었기, 때문에 강희제는 의문을 품고 그것을 조사하라고 한 것이다. 따라서 강희제는 ‘鴨綠江—白頭山天池—土門江(豆滿江)’을 조선과의 국경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숙종대 조선 역시 ‘압록강—백두산천지—두만강(토문강)’을 국경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도제조 이이명이 말하기를 “查官의 행차는 定界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백두산은 甲山으로부터 거리가 6~7일정이며, 인적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鎭·堡의 把守가 모두 산의 남쪽 5~6일정에 있습니다. 大明一統志에는 백두산이 여진에 속한다고 하였는데, 그가 혹시 우리나라에서 파수하는 곳을 경계로 한다면 일이 매우 난처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미 土門江과 鴨綠江 두 강을 경계로 한다면, 물의 남쪽은 모두 마땅히 우리 땅이 되어야 하니, 마땅히 接伴使로 하여금 이로써 변명하여 다투게 하여야 합니다.”10)

9) 필자는 강희 23년(1684)에 간행된 『성경통지』를 아직 보지 못했다. 다만,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雍正 12년(1734)에 呂耀曾, 王河, 魏樞 등이 편찬한 『성경통지』와 건륭 13년(1748)에 阿桂 등이 편찬한 『성경통지』를 보았을 뿐인데, 呂耀曾 등이 편찬한 것과 阿桂가 편찬한 것을 대조해본 결과 長白山에 대한 설명이 동일하였다. 강희 연간에 간행된 것에서도 동일한 내용일 것으로 추정한다. 呂耀曾, 王河, 魏樞 等, 『盛京通志』 卷13, 山川志, 長白山 항목; 阿桂 等, 『盛京通志』 卷13, 山川志, 長白山 항목(中國邊疆史志集成 東北史志 第1部 第1卷, 493쪽).

청이 把守가 설치된 곳을 국경으로 삼을까 염려하고, 그로 인해 백두산을 잃을까 염려하는 것으로 보아, 조선 역시 ‘압록강—백두산 정상부—토문강(두만강)’을 국경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초기 국경인식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水系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다는 점에서는 청과 마찬가지로이다.<sup>11)</sup>

위 글에서 조선초부터 사용되어 온 ‘豆滿江’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청의 禮部에서 보내온 咨文이 ‘土門江’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이 보낸 외교문서인 咨文들에서 사용되는 ‘土門江’이 ‘豆滿江’이라는 사실은 영조 33년(1757)에 청 예부에서 보내온 咨文<sup>12)</sup>에 대한 回咨<sup>13)</sup>에서도 분명하다. 당시 犯越하여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범죄자들이 ‘두만강을 건너 왔다’고 하자, 청은 ‘이들이 말하는 두만강이 토문강인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물어왔다. 이에 대한 회자에서 조선 정부는 그들이 말하는 ‘두만강’은 곧 ‘토문강’이라고 확인하고 있다.<sup>14)</sup>

## 2. 정계비의 위치와 ‘土門’: 논란의 시작

숙종 38년(1712, 강희 51년) 5월 15일 목극등은 정계비를 세웠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大清

烏喇總管穆克登 奉旨查邊 至此審視 西爲鴨綠 東爲土門 故於分水嶺上 勒石爲記 康熙五十一年五月十五日 筆帖式 蘇爾昌 通官二哥 朝鮮軍官 李義復 趙台

10) 『肅宗實錄』 51卷, 38年 3月 8日.

11) 『肅宗實錄』 51卷, 38年 3月 6日. “知經筵 崔錫恒이 말하기를…鴨綠江과 土門江 의 두 강은 자연히 물로 한계를 지을 수 있지만, 두 강의 근원이 되는 첫머리에 여러 물이 뒤섞여 흐르는 곳은 확실하게 정하기 어려움이 있으니, 마땅히 道臣들로 하여금 널리 故老들에게 묻고 지형을 자세히 물어서 즉시 계품하게 하소서.”

12) 『同文集故』 卷57, 犯越 9, 禮部知會詳查犯殺處所咨(乾隆 22年 9月 14日), “屬該界冊內, 竝無豆滿江名色, …朝鮮國王查明, 趙自永等所供之豆滿江, 是否卽係韓尙林·李桂新所供之土門江, 或語音不同, 以致名色…”

13) 『同文集故』 卷57, 犯越 9, 回咨(乾隆 22年 12月 6日), “…至於豆滿江土門江之名稱, 相左小邦北界一帶水, 國俗謂之豆滿江, 諸囚之供稱豆滿江者, 卽大國所稱土門江也…”

14) 강석화, 「백두산정계비와 간도」, 『한국사연구』, 96호(1996), 124쪽.



相 差使官 許樑 朴道常 通官 金應憲 金慶門.

비문의 ‘烏喇’는 만주어 ‘ula’이며, ‘江’이라는 뜻이다. 본래 명칭은 打牲烏喇(혹은 打牲烏拉)로서 順治 14년(1657)에 설치되었고 강희 연간에도 존속되었다. 總管(總管)은 그 지역의 책임자를 말한다. ‘烏喇’의 위치는 오늘날 吉林省 吉林市 북쪽의 烏拉街鎮이다.<sup>15)</sup> 백두산에서 발원하여 북류하는 송화강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sup>16)</sup>

비문의 ‘分水嶺’이라는 지명은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목극등이 비문을 설치하면서 붙인 것이다. 그는 이를 통하여 압록강과 토문강(두만강) 사이의 分水界를 지칭하고자 하였다. ‘分水嶺’은 말 그대로 분수계(divide)를 의미하며, 산봉우리를 이은 선에 해당하고, 하천의 유역을 나누는 경계이며, 빗물의 경계를 의미한다. 실제로 이곳은 압록강과 두만강 사이 분수계 능선의 한 지점이며, 압록강과 松花江 사이의 분수계이기도 하다.

비문의 ‘土門江’은 분명 조선에서 ‘豆滿江’이라고 불리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金指南의 『北征錄』 5월 7일자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여기서, 경원—회령—무산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는 두만강의 유로와 같다.

날이 저문 후에 총관이 나를 불러 말하였다. “우리를 마중하러 오는 人馬가 현재 慶源 건너편 厚春[琿春]에서 기다리고 있다. 내일 아침에 일을 잘 아는 장교 두 명으로 하여금 나의 牌字를 가지고 후춘으로 달려가라 전달하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대여섯 사람을 뽑아 말 열 필과 함께 會寧으로 가서 머물며 기다리도록 하겠다. 우리가 백두산을 살피고 茂山으로 내려온 후에, 즉시 황제께 상주하는 보고서를 부칠 것이니, 회령에서부터 직접 건네 보내면 거리가 크게 줄 것이다.”<sup>17)</sup>

15) 牛平漢, 『清代政區沿革綜表』(北京: 中國地圖出版社, 1990), 108쪽.

16) 목극등이 정계비를 세운 후 조선으로 하여금 목적으로 연결하도록 한 하천은 黑石溝(土門河)—五道白河—松花江—黑龍江—아무르강이 되어 바다로 들어간다. 이를 따라가면 목극등의 관할지인 ‘烏喇’ 역시 조선의 영토가 된다. 이 때문에 정계비의 ‘토문’을 송화강의 지류로 보면서 그 우안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러할 경우 백두산 정상부와 천지는 조선의 영토에서 제외된다.

17) 김지남(의 저)/이상태(의 역), 『조선시대 선비들의 백두산 답사기』(혜안, 1998), 97~98쪽.

정계비의 위치는 천지의 동남방 5킬로미터 지점이다. 그가 이곳에 정계비를 세운 것은 앞서 언급한 강희제의 국경인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압록강과 토문강(두만강)이 백두산천지의 물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은 그가 찾은 것이 모두 ‘물이 구멍에서 흘러나오는 곳’이었다는 점을 통하여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목극등이 압록강과 이른바 ‘두만강(토문강)의 근원’을 발견할 때 함께 있었던 金慶門의 구술을 기록한 洪世泰의 「白頭山記」를 살펴보기로 한다.

(5월 11일 백두산 정상에 올랐다가)… 산등성이를 따라서 천천히 걸어가 3~4리쯤 내려가서 비로소 압록강의 근원을 찾았다. 샘(泉)이 있는데 산의 구멍(山穴) 속에서 물이 솟아나와 수십백 보도 못 가서 좁은 골짜기에서 큰 골짜기로 흘러들어갔다… 또 동쪽으로 가다가 짧은 산등성이를 하나 돌아 넘으니 하나의 샘(泉)이 있었는데, 서쪽으로 30~40보 흐르다가 두 갈래로 나뉘어졌다. 그 중 한 갈래는 서쪽의 샘압록강의 근원—역주과 하나로 합쳐졌지만, 다른 하나는 동쪽으로 흐르는데 그 흐름이 매우 가늘었다. 또 동쪽으로 산등성이를 하나 넘으니 샘(泉)이 있는데 동쪽으로 백여 보쯤 흘러가서, 가운데 샘(中泉)에서 갈라져 나온 동쪽의 것이 와서 합쳐졌다. 목극등이 가운데 샘(中泉)이 갈라지는 곳(泓水)에 앉아 김경문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이곳을 분수령이라고 이름짓고 비석을 세워서 경계를 정할 만 하다”하였다. 그 물줄기가 나뉘어져 사람 인(人)자를 만들었다. 한 가운데에 작은 암석이 있는데 형상이 엷드린 호랑이 같았다, 목극등이 이를 보고 말하기를 “이 산에 있는 바위가 또한 참으로 기이하니 귀부(龜趺)로 쓰면 되겠다” 하였다.<sup>18)</sup>

목극등은 백두산 정상에 올라 지형을 살펴보고, 混同江은 천지의 물이 넘쳐흘러 강이 되어 나가지만, 지형상 압록강과 토문강(두만강)은 물이 넘쳐 나가지 않으며, 그것이 스며들어 샘이 되어 솟아난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때문에 그는 ‘물이 솟아나는 샘’을 찾았다. 또한 그는 중국어와 만주어를 모두 할 줄 알았으므로,<sup>19)</sup> ‘土門(tumen)’이 ‘穴(tomon)’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18) 『萬機要覽』軍政編 5, 洪世泰 白頭山記(민족문화추진위원회(역), 1967), 509~513쪽.

19) 김지남(외 저)이상태(외 역), 앞의 책, 129쪽.

그가 찾은 샘들 중 압록강의 발원지(서쪽의 샘, 西泉; 山穴)는 지하수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천지의 물은 아니다. 천지 수면의 해발고도는 중국측 자료에 의하면, 2,189.1 미터, 북한측 자료에 의하면 2,190.5 미터이다.<sup>20)</sup> 정계비 터의 해발고는 2,200미터 이상으로 천지 수면보다 높다. 그가 정계비를 설치한 가운데 샘(中泉)은 천지의 물이 아니라 비와 용설수가 지하로 스며들었다가 솟아난 것이었다.<sup>21)</sup> 金指南의 기록을 보면, 그가 백두산 지경인 甲山에 도착한 1712년 4월 12일 이후 목극등이 ‘가운데 샘(中泉)’을 찾은 5월 11일까지 한달 사이에 무려 14일 동안 눈, 비, 우박이 내렸다.<sup>22)</sup> 바로 이 물들이 지하로 스며들었다가 솟아난 것이다. 비가 장기간 오지 않는 시기에 이 지역은 물길이가 없고, 그 흔적만 남아 있는 ‘乾川’이 된다.

목극등은 이러한 점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압록강—백두산천지—토문강(두만강)이 연결되어 있다는 과거의 기록들에 입각하여 정계하고자 하였음이 분명하다. 때문에 그는 토문강(두만강)의 다른 발원지를 찾으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목극등 일행이 그린 <白頭山定界碑圖>(규장각 奎26675)에는 압록강은 천지의 물이 직접 흘러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통하여 그가 압록강의 첫번째 발원지라고 본 ‘山穴’이 天池와 맞닿려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토문강(두만강)의 발원지 역시 천지에 가깝게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천지의 물이 솟아나 토문강(두만강)이 된다고 생각한 것 같다.

생각이 그러했다면, 정계비는 천지 한가운데나 백두산 정상에 세웠어야 옳다. 그러나 그는 천지의 물이 지하로 흘러 ‘中泉’이 되고, 이 물이 分流하여 압록강과

20) 유충걸·심혜숙, 『백두산과 연변조선족: 지리학적 연구』(백산출판사, 1993), 89쪽.

21) 백두산은 화산지형으로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무암은 伏流현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두만강의 최상류인 紅土水, 石乙水, 紅丹水는 이러한 특성이 잘 나타난다. 홍토수는 북한 무두봉 동북쪽에서 발원하며, 발원지에서는 비가 올 때만 하천의 형태가 있고 비가 오지 않으면 건천이 되는 ‘時令河’ 혹은 ‘季節河’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중단에 이르러서는 모든 강물이 땅의 갈라진 틈과 浮石層 밑에 스며들어가 伏流(暗流)하기 때문에 지표면에서는 하천이 있는지조차 알기 어렵다. 하단에 이르러서는 복류하던 물이 하상으로 솟아나 흐르기 시작한다. 석을수는 대연지봉 동남에서 발원하며, 상단은 시령하, 계절하의 성격을 띠고, 하단에 이르러서야 정상하천이 된다. 홍단수는 북한의 삼지연에서 발원하여 동북방향으로 흐른다. 약 6킬로미터를 복류한다(유충걸 등, 앞의 책, 159쪽).

22) 김지남(외 저), 앞의 책, “4월 14일 눈, 4월 16일 비, 4월 17일 비안개, 4월 19일 비, 4월 20일 비, 4월 29일 비, 4월 30일 비, 5월 1일 비, 5월 4일 비, 5월 5일 비, 5월 6일 비, 5월 7일 비, 5월 9일 우박.”

토문강(두만강)으로 들어간다고 보아, 그 지점에 정계비를 세웠다. 압록강—백두산 천지—두만강이 연결되어 있다는 고래의 관념에 충실한 행동이었다. 그 결과 백두산과 천지가 청에 속하여 논란을 일으키게 되었다.

그가 정계비로부터 목책으로 연결시키라고 한 물줄기가 ‘tomon(土門)’인 것 역시 맞다. 북류하다(入地暗流)가 솟아나는(水出)<sup>23)</sup> 물을 여진족(만주족)들은 그렇게 불렀다. 그러나 그 ‘tomon(土門)’은 ‘tumen(土門, 豆滿)’으로 흘러들지 않았고 雙目峰 북쪽에서 동북류하여 松花江의 지류로 흘러 들어갔다.<sup>24)</sup> 반면, 목극등은 그가 발견한 토문강(두만강)의 근원이 땅속으로 들어가 흐르다가 100여리 떨어진 곳에서 솟아나 토문강(두만강)이 된다고 생각했다.

정계비는 세워진 직후인 5월 16일부터 논란이 되었다. 茂山에서 대기하고 있던 조선측 접반사 일행은 목극등이 정한 토문강(두만강)의 源流가 大紅丹水나 石乙水를 가리키는 것으로 알고 그보다 위에 있는 紅土水가 원류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압록강과 두만강의 수계를 경계로 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홍토수가 두만강의 원류라고 하여도 백두산 정상부와 천지는 조선의 영토가 되지 않는다.

#### IV. ‘土門江’ 및 ‘分界江’ 개념과 그에 대한 검토

##### 1. ‘豆滿江’과 구별되는 ‘土門江’의 등장

백두산정계비로 인하여 국토를 상실했다는 생각은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sup>25)</sup> 영조 40년(1764) 백두산에 오른 朴琮은 그의 『백두산유록』에서 “두만강 안쪽 700리의 땅을 잃어버리게 되었다”<sup>26)</sup> 하였고, 2년 뒤 백두산에 오른 徐命膺과 趙曦 역시

23) <白頭山定界碑圖>(규장각奎 26675).

24) 백두산 장군봉 동남부에서 발원하여 쌍목봉 북쪽으로 동북류하는 하천을 오늘날 중국에서는 ‘黑石溝’ 또는 ‘黑石河’라고 부르며, 일제시대의 일부 지도에는 ‘土門江’으로 표시되었다. 백두산 지역의 여진족들은 그것을 ‘tomon’이라고 불렀고, 중국어의 음가 한계로 인하여 ‘土門(tumen)’이라고 표기되었다.

25) 강석화는 이에 대해 ‘고토회복론’, ‘백두산정계비 비판론’, ‘분계강론’ 등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강석화, 『조선후기의 북방영토의식』, 『한국사연구』, 129호(2005), 106~113쪽.

“700여 리의 땅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으니, 아! 아깝다”고 쓰고 있다.<sup>27)</sup>

이러한 국토상실 의식은 申景濬(1712~1781년)의 『疆界考』에서도 발견된다. 신 경준이 두만강과 구별되는 ‘토문강’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만들어낸 것 같지는 않지만, 비교적 상세하게 ‘토문강’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盛京志에 장백산은 歌爾民商堅阿隣<sup>28)</sup>이며, 산해경의 不咸山, 당서의 太白山 혹은 白山이라고 하였다. (明)一統志에 이르기를 옛 회령부 남쪽 60리에 있으며, 넓이는 천리이고 높이는 2백리이며, 그 정상에 호수가 있으며, 둘레가 80 리인데, 남류하여 압록강이 되고, 북류하여 혼동강이 되고, 동류하여 阿也苦江 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阿也苦江이라는 이름이 없으니 옛날과 지금의 칭호가 다른 것이다. …土門과 豆滿은 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토문이 두만이며 두 강이 아니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용비어천가의 주에 이르기를 土門은 豆滿江의 북쪽에 있으며, 남쪽으로 慶源府와 60리 떨어져 있고, 서쪽으로는 常家河와 1일 거리 떨어져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르기를 會寧府로부터 북쪽으로 1일<sup>29)</sup>을 가면 阿赤郎貴이며, 다시 1일을 가면 常家下에 이른다고 하였다. 그러니 土門江 역시 白山에서 나와 동으로 회령 바깥을 매우 멀리 지나 그 하류는 두만강에서 만난다고 하겠다. 만약 두 나라의 국경을 정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백산 정상의 호수 물이 흐르는 곳을 한계로 삼아야 할 것이니, 이 물<sup>30)</sup>이 남북을 나누기 때문이다. 그러나 백산에서 나와 동으로 두만에 들어가는 물은 매우 많아서 오늘날 어떤 것이 산 정상 호수의 正派인지 알 수 없다. …東方地志에 이르기를 백산 정상의 물은 남류하여 압록강이 되고 동류하여 두만강이 된다고 하였다. 그런즉 阿也苦江이 두만강이 된다는 것에는 의심이 없다. (옛 기록들은) 모두 동류하여 두만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목극등이 경계로 정한 물을 살펴보건대 백산에서 나와 아주 멀리 남류하다가 동류하기 시작하니 산 정상 호수의 正派가 아닌 것 같다. 혹자는 말하기를 그 근원은 비록 남류하지만 마침내 동류하기 때문에 기록(志)들이

26) 김지남(외 저)/이상태(외 역), 앞의 책, 259쪽.

27) 위의 책, 291쪽.

28) 만주어로 ‘고르민상젠아란’, 곧 ‘太白山’이라는 뜻이다.

29) 『용비어천가』에는 2일로 되어 있다.

30) 원문에는 ‘天’으로 되어 있으나, ‘水’의 오기로 보인다.

동류한다고 한 것은 이로써 말미암은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압록은 마침내는 서류하는데 기록(志)들은 반드시 남류한다고 하였으니, 무릇 모두가 그 원류를 매우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로써 살펴볼 때 두만의 근원은 남류하는 것이 아니며, 바로 동류하는 것이다. 지리에 밝은 사람들은 모두 이르기를 土門이 산 정상 호수의 正派라고 하지만, 그 역시 알 수 없다.<sup>31)</sup>

신경준은 『용비어천가』의 ‘土門’을 언급하고 있다. 『용비어천가』에는 ‘土門’이 강이라고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그는 강으로 생각하고 있다. 동시에 백두산에서 나와 동으로 會寧 바깥으로 멀리 지나 두만강과 만나는 강을 ‘土門江’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 토문강이 백두산에서 발원하기는 하지만, 천지에서 발원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하였다. 반면에 두만강은 천지에서 발원하여 동류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보았다.

결국 그는 정계비는 백두산천지로부터 발원하여 동류하는 강, 곧 두만강의 발원지에 세워지거나, 천지의 正派로 확인될 경우 ‘토문강’의 발원지에 세워져야 마땅하며, 목극등이 세운 정계비는 두만강도 토문강도 아닌 정체불명의 물에 세워진 것으로 보고 있다. 천지와 물길이 연결되어 있으면서 동류하는 하천이 국경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하천은 없다. 분명한 것은 그가 ‘압록강—백두산천지—두만강’이 물길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점이다.

신경준은 『성경통지』를 보았다고 쓰고 있다. 이 책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長白山圖>라는 지도가 있다. 이 지도에는 우로부터 土門河, 三屯河, 賽因訥因, 額

31) 申景濬, 『旅庵全書』 卷7, 疆界考, 白頭山(景仁文化史 影印本, 267~269쪽). “盛京志長白山即歌爾民商堅阿隣山, 山海經作不咸山, 唐書作太白山或作白山, 一統志云在故會寧府南六十里, 橫亘千里, 高二百里, 其嶺有潭, 周八十里, 南流爲鴨綠江, 北流爲混同江, 東流爲阿也苦江, 而竝無阿也苦之名, 古今稱號之異也…(중략)…土門與豆滿音相似, 故或謂之土門即豆滿, 而非二水也. 然而龍飛御天歌註云, 土門在豆滿江之北, 南距慶源府六十里, 西距常家下二日程, 又云自會寧府北行一日至阿赤郎貴, 又行一日至常家下, 然則土門江亦出於白山東, 由會寧邊外頗遠, 而其下流合於豆滿江者也. 若欲定兩國之界, 卽當以白山巔潭水所流處爲限, 此水所以分南北也. 然而水之出於白山東入於豆滿江者甚多, 今不能知何者爲山潭正派…(중략)…東方地志云白山巔水南流爲鴨綠江, 東流爲豆滿江, 然則阿也苦之爲豆滿江無疑. 皆曰東流爲豆滿, 而今以穆克登定界碑之水觀之, 出於白山南流最遠而始東流, 似非山潭正派也. 或曰其源雖南流而其終乃東流, 志之稱東流以此云云. 而然而鴨綠之流其終卽西流, 而志必曰南流, 則蓋記其源流之甚詳也. 以此觀之, 豆滿之源非南流, 而乃東流者也. 明於地理者皆曰, 土門是山潭正派, 而亦未可知也.”

黑訥因<sup>32)</sup> 阿脊革土拉庫, 昂邦土拉庫<sup>33)</sup> 娘木娘庫河 등 7개의 하천이 압록강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맨 왼쪽에는 압록강으로 들어가지 않는 土門江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책의 「山川」<sup>34)</sup>에는 위에 언급한 7개의 하천이 輝發河로 들어갔다가 混同江(곧, 松花江)이 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鴨綠江’이라는 표현은 輝發河를 잘못 표시한 것이 된다. 또 土門江이 納線窩集<sup>35)</sup>에서 나와 동북류하여 遼善河, 三屯河와 합쳐져 混同江(곧, 松花江)이 된다고 하였다.

신경준은 이 지도와 「山川」의 기록을 보고, 두만강과 다른 ‘土門江’이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생각을 하였을 것이다. <長白山圖>는 오류가 있는 지도이지만, ‘土門河’나 ‘土門江’, 곧 ‘土門’이 여럿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그는 이를 보고 『용비어천가』를 근거로 들어 백두산 주변 지역에 ‘土門’이 들어간 하천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그것의 천지 발원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신경준의 이 글을 통하여, 회령 바깥을 멀리 돌아 두만강에 들어가는 ‘土門江’이 백두산천지에서 발원하여 동류하기 때문에, 이것을 경계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이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분계강’ 개념으로 이어진다.

## 2. ‘分界江’의 등장과 두만강·토문강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

‘分界江’이라는 용어는 『조선왕조실록』에는 나오지 않는다.<sup>36)</sup> 정계비 설치 직전인 숙종 32년(1706) 李頤命이 중국의 것을 참고하여 그린 <遼薊關防地圖>(규장각)<sup>37)</sup>에도 ‘토문강’이나 ‘분계강’과 같은 지명은 표시되어 있지 않다. ‘分界江’이라

32) ‘訥因’은 만주어의 ‘neyin’을 말하고, 어원커어의 ‘neyeng’을 말하는 듯하다. ‘平川’이라는 뜻이다. 각각 ‘암홍색 平川’, ‘아름다운 平川’으로 번역할 수 있겠다.

33) ‘土拉庫’는 만주어의 ‘turaku’로 ‘폭포’를 말한다. 阿脊革土拉庫(ajigeturaku)는 작은 폭포, 昂邦土拉庫(ambaturaku)는 큰 폭포이다.

34) 阿桂 等, 『盛京通志』 卷13, 山川志(中國邊疆史志集成 東北史志 第1部 第1卷, 505-509쪽).

35) 만주어로 ‘naluweji’을 옮긴 것이다. ‘nalu’는 야생초를 말하고, ‘weji’는 밀림을 말한다.

36)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 검색.

37) 李燦, 『韓國의 古地圖』(凡友社, 1991), 54~55쪽.

는 지명이 등장하는 것은 정계비 설치 이후라고 할 수 있다.<sup>38)</sup> 신경준 역시 『疆界考』에서는 분계강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가 분계강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四沿考」의 豆滿江 항목에서이다.

두만강은 祀典에 이어지는 북쪽 도랑에서 발원하여 백두산을 남쪽으로 흐르며 곧 복류(伏流)한다. 복류하는 곳에는 토돈과 목책을 설치하여 이로써 두 나라의 경계를 정하였다.…鐘城의 경계 북쪽을 거의 다 지나 分界江과 합하여 柔遠鎮에 이르며, 서쪽으로 꺾이다가 동류하면서 온성부의 성 북쪽을 지나 美錢鎮에 이른다…

주: 분계강은 저들의 땅에 있다. 백두산에서 근원하며, 대각봉을 지나 북동류하다가 土門江이 된다. 土門이라는 것은 그 것이 백여 리를 복류하다가 다시 땅 중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로써 이름 한 것이다. 또한 동으로 海關河가 되고, 또 동으로 分界江이 되며, 美錢鎮 서남에 이르러 두만강과 합한다. 토문강은 곧 백두산 정상에 있는 큰 못의 正派이며, 이 물이 한계 짓는 바가 두 나라의 경계이다. 목극등이 天坪 가운데로 오는 물로 정계한 것은 잘못이다. 자세한 것은 疆界考를 보라.<sup>39)</sup>

여기서 신경준은 자신이 「강계고」에서 “백두산에서 발원하여 동으로 회령 바깥을 멀리 지나 두만강에 합류하는 강,” 곧 ‘土門江’이라고 하였던 것을 ‘分界江’의 상류로 보고 있으며, 그것이 백두산천지에서 발원한다고 확정하고 있다. 또한 그는 ‘土門’을 한자 그대로 ‘땅의 문’을 의미한다고 보아, 물이 복류하다가 땅에서 솟아나기 때문에 ‘土門江’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생각하였다. 결국, 그는 목극

38) 물론 <天下大總一覽之圖>(국립중앙도서관, 李燦, 위의 책, 23쪽)에는 ‘土門江’, ‘分界江’은 표시되었으나, 정계비는 표시되어 있지 않다. 이 역시 토문강과 분계강이 표시된 것으로 보아 정계비 이후에 제작된 지도이다.

39) 申景濬, 『旅庵全書』 卷8, 四沿考, 豆滿江.(景仁文化史 影印本, 281쪽). “豆滿江祀典係北瀆源出, 白頭山南流即伏流, 伏流處設土墩木柵, 以定界兩國之界, 復流由天坪中, 至三山社, 與虛項嶺以東之水合, 東流至茂溪社, 彎曲如環曆豐山鎮下鎮, 至會寧府城北, 折而北流, 歷盡鐘城界北, 與分界江合, 至柔遠鎮, 西折而東流, 經穩城府城北, 至米錢…” “分界江在彼地, 源出白頭山, 由大角峰北東流爲土門江. 土門者, 以其伏流百餘里, 復流出於土中, 故名. 又東爲海關河, 又東爲分界江, 至美錢鎮西南, 合豆滿江. 土門江即白頭山頂大潭正派, 而此水所以限兩國地界者. 穆克登以天坪中來之水爲定界, 誤矣. 詳見疆界考.”



등의 정계가 잘못되었으며, ‘압록강—백두산천지—土門江—海蘭河(海蘭河)—分界江—豆滿江’이 국경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의 이러한 주장에는 몇 가지 모순이 있다. 첫째, 그는 「사연고」에서 두만강과 압록강을 본문으로 서술하고 분계강은 별도의 항목도 없이 주(註)로 처리하고 있다. 책 제목이 의도하는 바와 그의 분계강 국경설에 입각하자면, 분계강이 본문으로 처리되었어야 한다. 둘째, 백두산 주변의 지형으로 보아 천지의 물이 직접 흘러 내리는 것은 장백폭포 이외에는 없다. 따라서 海蘭河(海蘭河)는 天池와 이어지지 않는다. 海蘭河(海蘭河)의 상류에 당시 여진족(만주족)이 ‘穴’의 의미로 부르는 ‘土門(tomon)’이라는 지류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것은 천지의 물이 흘러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영조 42년(1766)에 백두산에 올랐던 徐命膺의 「遊白頭山記」가 있다. 이 글에서도 ‘분계강’이 언급된다.

(나와 같이 백두산에 올라간 趙曦이 말하기를 “...姜莫從이라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土門江은 백두산 동남쪽 30리 밖 天坪 頭平處에서 나와 북으로 흑룡강에 흘러 들어가는데 그것을 土門이라고 하고, ...대개 온성의 서남쪽 100리에 分界江이 있고, 先春嶺 밑에 고려 시중 윤관의 정계비가 있는데, 강 이름과 비석으로 추정하건대 이곳이 우리나라의 경계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물며 분계강은 尹伊厚의 作加土江<sup>40</sup>과 합류하여 두만강으로 들어가고 두만강은 또 백두산의 동쪽에서 솟아나오니, 그 원류를 찾아서 한 번만 보면 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 700여 리의 땅을 하루아침에 두 손 들고 잃어버렸으니, 아! 아깝다”고 하였다.<sup>41</sup>)

40) 조선시대나 현재나 많은 사람들이 ‘作加土江’을 ‘件加土江’으로 잘못 표기하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 이 하천의 이름을 처음 기록한 사람은 효종 9년(1658) 나선정벌에 참여한 申澗이다. 그의 『北征錄』(朴泰根 譯註, 『國譯北征日記』,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참조)에 ‘件加吐江’(61쪽) 혹은 ‘舛加吐江’(127쪽)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필사본 원문을 확인하니, 전자는 같고 후자는 ‘舛可退江’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申澗의 원문이 아니라 누군가가 필사한 것이다. 申澗은 그의 기록 전체에 걸쳐 현지 여진어 발음을 우리 한자음으로 적고 있기 때문에, 본래는 ‘作加土江’ 혹은 ‘作加吐江’ 혹은 ‘作可退江’ 등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야 ‘布爾哈通河’와 발음이 통한다. <대동여지도>에도 온성 부근에 ‘件加堆’라는 지명이 나온다. 이 역시 ‘布爾哈通河’를 의미할 것인데, ‘件加堆’를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41) 김지남(외 저)/이상태(외 역), 앞의 책, 291쪽.

이에 따르면, ‘土門江’은 黑龍江의 지류이고, ‘分界江’이 별도로 있으며, 그것은 두만강과도 구별되는 강이다. 위치상 오늘날의 海蘭河에 해당한다. 결국, 서명응은 정계비의 ‘土門’은 두만강이 아닌 오늘날 송화강—흑룡강의 지류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며, 국경은 ‘分界江’이 되어야 하고 정계비 역시 ‘分界江’의 발원지에 세워야 옳았다고 말하고 있다.

‘分界江’에 대한 보다 정교화된 사고가 成海應(1760~1839년)에게서 발견된다. 그는 『白頭山記』에서 백두산에 대한 옛 기록을 반추하고, 목극등의 정계비 설치과정에 대해 서술한 후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豆滿江과 土門江은 실제로 하나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分界江 역시 天池에서 발원하여 동류한다고 보아 토문강과 두만강을 둘로 나누기에 이르렀으며, 분계강을 가리켜 두만강이라 한다. 분수령으로부터 土墩이 杉谷 分界江까지 이르는데, 강은 대략 60~70리에서 발원하며, 赤巖의 두만강은 80리 정도에서 발원한다. 평탄한 산기슭이 비스듬히 흘러가다가 두 강 사이를 따라 眞長山이 되며, 海關에 이르러, 진장산은 다시 북으로 北甌山이 되고, 또 북으로 幞竹峰이 되며, 混同江과 分界江을 끼고 海關과 만난다. 여러 골짜기의 물은 온성 作加堆에 이르러 두만강과 합한다. 경흥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고려 시종 윤관이 선춘령에 정계비를 세웠고, 분계강이 그 밑을 돌아흐르니, 이 곳이 우리 땅이라는 것에는 의심이 있을 수 없다.<sup>42)</sup>

성해응은, 다른 사람들이 토문강은 따로 있고 분계강과 두만강은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자기가 보기에 토문강과 두만강이 같은 것이며, 분계강이 별도로 있다고 본다. 이 분계강은 백두산 동쪽에서 발원하여 海蘭江(海蘭河)과 만나고 다시 穩城에서 두만강과 만난다고 한다. 그가 보기에 백두산정계비는 내용상 ‘정계비—토문강(두만강)’을 국경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며 ‘백두산정계비—分界江—海蘭江(海蘭河)—作加堆(布爾哈通河)—두만강(토문강)’이 국경이라고 주

42) 成海應, 『研經齋全集』 卷46 「白頭山記」(民族文化推進會 發行, 韓國文集叢刊 274(2001), 491쪽). “豆滿土門實一也. 而人見分界亦, 自天池發源而東流, 遂以土門豆滿分之爲二, 指分界爲豆滿. 自分水嶺土墩訖于杉谷分界, 江之源幾六七十里, 赤巖豆滿江之源可八十里, 平麓進行, 從兩水間爲眞長山, 訖於海關, 眞長山又北爲北甌山, 又北爲幞竹峰, 挾混同江分界江會海關, 諸谷水至穩城作加堆合豆滿江, 至慶興入于海. …高麗侍中尹瓘有定界碑於先春嶺, 而分界江繞其下, 此爲我境無疑…”

장하고 있다. 신경준의 글과 비교하여, 반드시 천지에서 발원하여야만 한다는 생각이 사라졌고, 分界江과 海蘭江(海蘭河)의 순서가 바뀌어 있다.

한편, 성해응은 「穆克登定界碑跋」에서 두만강 바깥지역에 존재하는 ‘土門’ 관련 지명에 주목하고 있다.

분계강은 백두산 북쪽 가지의 작은 물이다. 그것의 북쪽 근원은 혼동강이 발원하는 곳이다. (혼동)강은 동서 두 개의 근원이 있는데, 동쪽의 근원은 백두산의 정상에서 나와 폭포가 되고, 서쪽의 근원은 서산의 서쪽에서 나와 북류하면서 동쪽의 근원 및 여러 지류들과 합쳐져, 다시 북으로 諾尼江과 만나고, 다시 동북으로 방향을 틀어 布爾哈河와 만나고, 다시 동북으로 黑龍江과 만나 바다로 들어간다. 遼史 이후로부터는 혼동강이라는 이름이 黑龍江, 鴨子河와 뒤섞여 구분되지 않으니, 하물며 분계강이라고 불린 것임에랴! 김종서의 六鎮 개척 이후 두만강 밖은 내버려 둔지 오래되었고 여진부족의 근거지가 된지 오래다. 그러나 저들은 土門이라는 단어를 쓴다. 토문은 단지 두만강만이 아니다. 강 북쪽 여러 곳에 토문이라 불리는 곳이 있다. 土門烏拉, 阿集格土門<sup>43)</sup>과 같은 것이 그것이다. 만약 이것을 들어서 말한다면, 저들이 장차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이요, 그것을 어찌 거부할 수 있겠는가.<sup>44)</sup>

여기서 그는 『遼史』 이래 混同江이라는 이름도 불분명하였는데, 백두산 북쪽의 작은 물인 분계강인들 확실하게 구분되었겠는가 하면서, 정계비에 ‘東爲土門’이라고 써 있고, 여진족들 거주지에 ‘土門’이라는 지명이 많으니, 그것으로 증거를 삼

43) ‘작은 土門’이라는 뜻이다. <乾隆十三排圖>(八排東二)에 무산 서북쪽에 표시되어 있다. 오늘날 大馬鹿溝河, 紅旗河를 의미하는 듯하다. 그 지역에는 오늘날에도 ‘大滿溝(dàmǎngōu)’라는 하천이 있다. 아마 이 지명의 유래는 ‘tomon’일 것이다. 필자는 ‘白頭山—土門江—分界江—海蘭河’가 이어진다는 인식을 형성하는 데, 이 하천과 지명이 일정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하천은 두만강으로 흘러든다. 한편 성해응의 중국 동북지역 수계에 대한 인식이 부정확한 것으로 보아 이 지도를 보았다기보다는 전문으로 들은 것 같다.

44) 成海應, 『研經齋全集』 卷14 「穆克登定界碑跋」(民族文化推進黨 發行, 韓國文集叢刊 273(2001), 342쪽). “分界剛卽白頭北支小水也. 其北源卽混同江之所發也. 江有東西二源, 東源出白山之巔, 激湍奔注瀑布千尋, 西源出西山之西而北流, 與東源及衆谷之水合, 又北會諾尼江, 復轉東北會布爾哈河, 又東北會黑龍江入于海. 自遼史以後混同江之名, 與黑龍江鴨子河, 混淆不分, 況所稱分界江乎. 金節齋開拓六鎮之後, 豆滿之外, 漫置已久, 女真部族盤據已久, 然彼以土門爲辭矣. 土門不徒豆滿江也. 江北諸處往往多土門之稱, 如土門烏拉阿集格土門是也. 苟能執是而爲言, 彼將何辭而拒之哉.”

아서 땅을 되찾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는 ‘백두산정계비—分界江—海蘭江(海蘭河)—件加堆(布爾哈通河)—두만강(토문강)’이 국경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서 더 나가 ‘土門’이라는 지명들을 근거로 고토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역시 상당한 오해라 아니할 수 없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土門(tumen)’은 ‘萬’ 및 ‘두만강’과 관련되는 의미도 있지만, 여진어의 ‘穴’의 의미로서 ‘洞窟’, ‘伏流河川’, ‘峽谷(水口; 石門)’ 등을 지칭하기도 한다.<sup>45)</sup> 백두산 주변에는 이러한 ‘土門’이 많으며, 백두산이나 정계비나 두만강과 관련이 없는 곳에도 ‘土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地誌들의 부정확한 기록이나 풍문만을 가지고는 ‘분계강’ 개념을 정립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sup>46)</sup>

순조 8년(1808)에 편찬된 『萬機要覽』에 역시 ‘分界江’이 나온다.

輿地圖에는 分界江이 토문강의 북쪽에 있다 하였으니, 강의 이름이 분계강인 만큼 정계비는 당연히 여기에 세워야 한다. 또 비문에 이미 동쪽은 토문강이 된다 하였으니 토문강의 발원지에 세워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식자들은 당시에 아무도 다투어 밝히지 못하고, 수백 리 강토를 앗아서 잃고 말았다는 것을 한탄한다 하였다. 옛적에 윤관이 영토를 확장하여 速平江까지 이르렀는데, 그 때 세운 비가 아직도 남아 있다. 김종서 때에 와서는 두만강으로 경계를 정하였으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윤관의 비로 증거를 세워서 따지지 못했음이 당

45) 1957년 8월에서 9월 사이, 길림성 측회부분 ‘여행단’은 천지 동남 5km 지점에서 서쪽으로는 大旱河와 접하고 동쪽으로는 黑石溝와 이웃한 곳에서 정계비의 귀부를 발견하고, 黑石溝 동남쪽에서 石堆와 土堆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黑石溝가 발단하는 몇 리 지점에서 ‘土門’을 발견하였다. 이때의 ‘토문’은 ‘土石封堆之下 兩岸對立如門’과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黑石溝 내에는 흐르는 물에 의해 침식되어 양쪽의 토석이 마주보고 서있어서 ‘門’자와 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中國測繪史編輯委員會, 앞의 책, 617~618쪽). ‘tomon’ 곧 ‘옴폭 파인 협곡(水口; 石門)’인 것이다. 이때의 ‘土門’은 정계비문 중의 ‘土門’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에 중국과 북한은 1964년 「朝中邊界議定書」에 경계표지를 정하면서 ‘黑石溝(土門江)’이라는 표현을 넣었다(제7조; 제8조). 정계비상의 ‘土門’은 ‘tumen’ 곧 阿桂의 『滿洲源流考』(1778년) 이후에는 ‘圖們江’으로 불린 것을 의미하고, 우리가 부르는 ‘豆滿江’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다만, 그 위치와 토돈과 목책을 잘못 연결시켰을 뿐이다.

46) 이들은 아직 강희 58년(1719) 제작된 <皇輿全覽圖>, 건륭 27년(1762) 제작된 <乾隆內府皇輿圖> (乾隆十三排圖)와 같은 지도를 보지 못한 것 같고, 그 영향 하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西北界圖>(규장각) 역시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의 동북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

시의 사명을 띤 자의 잘못임을 한스럽게 여긴다.<sup>47)</sup>

여기서는 백두산천지로부터 발원하는 물을 기준으로 국경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分界江’이라는 개념에서부터 시작하여 역으로 백두산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 결국 ‘백두산—토문강—분계강’을 경계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을 통하여 이미 지도에서도 ‘分界江’과 ‘土門江’이 표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계강’이 등장한 이후, 두만강과 ‘토문강’ 그리고 ‘분계강’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지도들을 통해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sup>48)</sup> 조선후기에 제작된 지도들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 ① 정계비의 토문강은 두만강이고, 분계강은 별도로 있다는 인식이다. <西北 彼我兩界萬里地圖>(규장각)를 들 수 있다.
- ② 정계비의 토문강은 분계강이며, 두만강과 별개로 흐르다가 합류한다는 인식이다. <北界地圖>(규장각)과 <東國地圖>(송실대 박물관)을 들 수 있다.
- ③ 토문강은 백두산에서 발원하여 독자적으로 흐르고, 분계강 역시 백두산 아닌 곳에 고유의 발원지가 있어 독자적으로 흐르다가 두만강과 합류한다는 인식이다. <朝鮮全圖>(송실대 박물관)를 들 수 있다.
- ④ 정계비의 토문강은 두만강이 아니며, 정계비로부터 토문강이 흘러가지만 분계강과 만나는지는 알 수 없거나 혹은 복류한다는 인식이다. 鄭尙驥의 <東國地圖 帖: 咸慶北道>를 들 수 있다.
- ⑤ 정계비의 토문강은 斷流되며, 정계비의 물길은 두만강으로 들어가고, 분계강은 별도로 있다는 생각이다. <海東圖 帖: 咸慶道>를 들 수 있다.
- ⑥ 토문강은 곧 오늘날의 松花江이라는 인식이다. 단, 정계비의 목책이 이러한 토문강으로 연결되었다는 인식이다. 군현지도인 <海東地圖: 茂山府 白頭山>(규장각)을 들 수 있다.
- ⑦ 토문강은 송화강이지만, 정계비의 목책은 두만강으로 이어졌다는 인식이다. 군현지도인 <備變司印 咸慶道地圖: 茂山府 白頭山>(규장각)을 들 수 있다.

47) 『萬機要覽』軍政編 5, 白頭山定界(민족문화추진위원회역(1967)), 508~509쪽.

48) 지도는 주로, 李燦, 앞의 책; 김기혁, 『朝鮮 後期 古地圖에 나타난 朝·淸·露 國境意識의 變化』(釜山大學校 釜山地理研究所, 2006)를 참조함.

⑧ 정계비의 토문강은 두만강이며, 두만강이 곧 분계강이라는 인식이 있다.

김정호의 <大東輿地圖>가 대표적이다.

이렇듯 조선 후기의 백두산, 두만강, 토문강, 분계강에 대한 인식은 다양하며, 그 이유는 일차적으로 지리적 정보의 부재에 있었다. 지도들에 일관된 것은 백두산정계비가 있다는 것과 분계강이라고 불리는 것이 穩城 부근에서 두만강과 합류한다는 점이다.<sup>49)</sup> 그 외에는 추론과 상상으로 밖에 볼 수 없다.

### 3. '分界江'이라는 지명의 출처

앞서 언급한 신경준, 서명응, 성해응, 그리고 『만기요람』의 저자들이 '分界江'을 아무런 근거 없이 만들어낸 것은 아닐 것이다. '分界江'이라는 지명의 출처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한다.

필자는 '分界江'이 '경계를 나누는 강'이라는 의미에서는 실체가 없다고 본다. '分界'는 여진어(만주어) 단어 중 한글로 '풍가(豊家)', '풍계(豊溪, 豊界)', '분계(分界)' 등으로 적을 수 있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制勝方略』 第1卷 列鎮防禦 鍾城鎮 항목에는 '豊家'가 들어간 部落(부족) 명칭과 鍾城으로부터의 거리, 추장 이름, 호수가 기록되어 있다. '豊家上端部落', '豊家洞口部落', '豊家表洞部落', '豊家上洞部落', '豊家洞多伊部落', '豊家水洞部落', '豊家吳加善部落' 등이 그것이다.<sup>50)</sup> 모두 중성진에서 서쪽으로 2息 10리(곧 70리)~2息 25리(곧 85리) 떨어져 있다. 會寧鎮 항목에는 '豊家部落'이 회령진으로부터 서쪽으로 2일 반 떨어져 있다고 하였다.<sup>51)</sup>

이것을 지도상에서 확인하면 오늘날 海蘭河 강변의 龍井市 일대로 추정된다. 앞

49) 이 점에 있어서 <대동여지도>는 예외적이다. <대동여지도>는 다른 지도들에서 分界江이라 한 것을 '分東江'이라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50) 『制勝方略』, 第一卷 列鎮防禦 鍾城鎮: 豊家上端部落, 西距二息二十里, 酋長玉孫等三十戶; 豊家洞口部落, 西距一息二十五里, 酋長鋤應鋤耳等四十戶; 豊家表洞部落, 西距二息十里, 酋長者夢介等二十五戶; 豊家上洞部落, 西距二息二十里, 酋長無, 阿羅里等五十戶; 豊家洞多伊部落, 西距二息二十五里, 酋長無, 萬等十五戶; 豊家水洞部落, 西距二息十五里, 酋長無, 安老等一十戶; 豊家吳加善部落, 西距二息十五里, 酋長無, 彊加尙等三十戶.

51) 위의 책, 會寧鎮: 豊家部落, 西距二日程, 酋長針鋤應巨等二十餘戶.

서 신경준, 서명웅, 성해응 등이 말하는 ‘分界江’의 위치와 대략 일치한다. 『제승방략』의 이 지명들은 음을 취한 것일 뿐이다. 경계를 나눈다는 의미의 ‘分界’와는 관계가 없다.

이와 관련해서 다른 자료가 있다. 효종 9년(1658) 제2차 나선정벌에 나선 申瀏는 “5월 3일 豊溪, 作可吐 두 강을 건너 作加吐강가에서 묵었다”<sup>52)</sup>고 쓰고 있다. 여기서 ‘豊溪’는 여진어(만주어)를 우리식 한자음으로 표기한 것이다.

申瀏가 건넌 ‘豊溪江’은 오늘날의 海蘭河이다. 그는 1658년 5월 2일 오전 7시에 두만강을 건너고, 古羅耳嶺을 넘어 法順에서 하루를 묵고, 5월 3일 豊溪, 作可吐 두 강을 건너 作加吐강가에서 묵었다. 古羅耳嶺은 古羅耳洞 뒤에 있으며, 고라이동은 會寧府 高嶺鎮으로부터 서쪽으로 7리 떨어져 있고, 法順(伐此崇)은 고령진으로부터 2息(60리)여 리 떨어져 있다. 따라서 豊溪江은 고령진에서 서쪽으로 60여 리 이후로부터 作加吐江 이전에 있어야 한다. 作加吐江은 오늘날 布爾哈通河이므로, ‘豊溪江’은 오늘날의 海蘭江이다. 만약 신류가 그 강을 ‘경계를 나누는 강’으로 알았다면, 분명 ‘分界江’이라고 썼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한 강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또 다른 자료가 있다. 그것은 정계비 설치 이후에 제작된 <西北界圖>(규장각)<sup>53)</sup>이다. 이 지도는 오늘날 海蘭江에 대하여 “豊界江又分界江”이라고 표시하고 있다. ‘豊界江’이라고도 하고 ‘分界江’이라고도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지명이 표기된 것은 바로 여진어의 음을 우리식 한자 발음으로 표현하였기 때문이다.

『제승방략』에 ‘豊家’, 신류의 『북정록』에 ‘豊溪’, <서북계도>에 ‘豊界’와 ‘分界’로 표시된 지명은 여진어(만주어)의 ‘fungke(麻痺)’, ‘fungku(人絹, 麻)’, ‘fungkeri hiyan(蕙草)’, ‘fungkeri ilha(蕙蘭)’와 관련이 있다. 모두 ‘麻(삼)’와 관련된 단어들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제승방략』 제1권 鍾城鎮 항목에 “尙家麻坡部落, 西距二息十里, 酋長分加里等一百五十七戶(상가마파부족, (중성으로부터) 서쪽으로 2식 10리(곧 70

52) 申瀏, 『北征錄』, 5월 3일. “越豊溪作可吐兩江宿于作可吐江邊”(朴泰根 譯註, 『國譯北征日記』, 韓國精神文化研究院(1980), 61쪽, 원문 1쪽. 원문 중 ‘件’을 ‘作’로 수정함). 申瀏는 『北征錄』 전체에 걸쳐 여진어 지명을 다수 기록하고 있는데, 대부분 현지의 발음을 우리의 한자음으로 기록하였다.

53) 李燦, 앞의 책, 47~49쪽. 이 지도는 乾隆 27년(1762)에 제작된 <乾隆內府皇輿圖>(乾隆十三排圖)를 모사하고, 거기에 조선의 인식을 첨가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리)이며, 추장 분가리 등 157호이다)” 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尙家麻坡部落은 거리로 보아 오늘날 龍井市 및 海蘭河 지역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앞서의 ‘豐家’로 시작되는 부족들의 위치와 같다.

『제승방략』의 部落名은 ‘[여진어]+[지표나 위치의 특징에 관련된 한자]+[부락]’ 순으로 기록되는 패턴이 종종 발견된다. 여기서 尙家는 여진어(만주어)이며, ‘sangga’[동굴(窟窿), 구멍(孔眼)]을 옮긴 것으로 보인다. ‘麻坡’는 한자로 지표의 특징을 기술한 것이다. 곧 ‘삼(麻)의 언덕’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제승방략』의 ‘豐家’ 지역이나 이 ‘尙家’ 지역은 거의 같은 지역이며 ‘麻(삼)’와 관련된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었을 것이다. 한편, ‘蕙草’는 ‘佩蘭’, ‘零陵香’으로 불리며, 그 잎이 삼(麻)과 비슷하다. 따라서 ‘麻坡’는 ‘蕙草가 특징적인 언덕, 고개, 비탈, 독, 제방’을 의미할 수도 있다.

결국, ‘풍가(豐家)’, ‘풍계(豐溪, 豐界)’, ‘분계(分界)’의 어원은 여진어(만주어) ‘fungke(麻痺)’, ‘fungku(麻)’, ‘fungkeri hiyan(蕙草; 돼지풀)’, ‘fungkeri ilha(蕙蘭)’ 등의 ‘fungke’ 혹은 ‘fungku’ 혹은 ‘fungkeri’일 것이다. ‘fungke’ 혹은 ‘fungku’에 여진어(만주어)에서 ‘-의’를 나타내는 ‘i’가 추가되어 ‘funkei bira’ 또는 ‘fungkui bira’가 되었거나(bira는 강을 의미한다), 蕙草·蕙蘭에서 유래한 ‘fungkeri’에 ‘bira’가 합쳐져 ‘fungkeri bira’가 되었을 것이다. 이를 ‘豐家’, ‘豐溪江’, ‘豐界江’, ‘分界江’ 등으로 옮긴 것이 분명하다. 더욱이, 尙家麻坡部落의 추장 이름이 ‘分加里’이다. 이는 여진어(만주어) ‘fungkeri’<sup>54)</sup>를 나타낸 것이 분명하다.<sup>55)</sup> 모두 ‘麻

54) ‘fungkeri’는 ‘funggin(늪은 돼지, 큰 돼지)’의 형용사형이다. ‘fungkeri hiyan(蕙草)’은 ‘돼지풀’로도 불린다. 尙家麻坡部落의 추장 이름 ‘分加里’는 결국 ‘늪은 돼지’ 또는 ‘큰 돼지’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풍가(豐家)’, ‘풍계(豐溪, 豐界)’, ‘분계(分界)’라는 지명은 ‘돼지’라는 의미의 여진어(만주어)를 옮겨 쓴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성해응의 『白頭山記』 중에 “杉谷分界江”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여기서 杉谷은 바로 ‘麻의 골짜기’를 의미한다. 따라서 ‘풍가(豐家)’, ‘풍계(豐溪, 豐界)’, ‘분계(分界)’라는 지명은 전체적으로 보아 ‘麻(삼)’와 관련된 지명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55) 한편, 연변대학의 심혜숙은 ‘海蘭河’의 ‘海蘭’이 만주어로서 ‘비술이 많다’라는 뜻이라고 하였다. 沈惠淑, 『중국 조선족 취락지명과 인구분포』(연변대학출판사·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13쪽. 비술나무는 비슬나무 또는 개느릅나무라고도 불린다. 한자로는 ‘榆’로, 만주어로는 ‘hailan’으로 표기된다. 그렇다면, ‘豐家’와 ‘豐溪江’, ‘豐界江’, ‘分界江’ 등은 海蘭河의 특정 구간을 지칭하는 지명이 된다. 이것은 신경준, 서명웅, 성해응, 그리고 『만기요람』의 저자들이 ‘分界江’을 海蘭江과 이어지는 하천(곧 海蘭河의 일부 구간)으로 이해한 것과 일치한다.



(삼)와 관계된 명칭이며, ‘경계를 나눈다’는 ‘分界’와는 관계가 없다.

## V. 결론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초기의 국경에 대한 인식은 ‘압록강—백두산천지—두만강’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으며, ‘天池發源說(天池流出說)’에 입각하고 있었다. 조선초기에는 여진어의 음가를 전하는 단어로서 ‘豆滿(투먼)’과 ‘土門(투문)’이 뚜렷하게 구별되고 있었다. 지명으로 ‘豆滿江(투먼강)’은 오늘날의 두만강을 가리키는 용어였으며, ‘土門(투문)’은 ‘穴’과 연관된 지형을 의미하는 일종의 보통명사였으나, 지명으로 사용되면서 고유명사로 변화되었다.

둘째, 조선에서는 ‘豆滿’이라는 한자가 지속적으로 두만강을 의미한 반면, 중국에서는 중국어의 음가 제한으로 인하여, ‘투먼(tumen)’과 ‘투문(tomon)’이 모두 ‘투먼(tumen)’을 표기하는 한자(徒門, 土門, 圖門, 圖們 등)로 귀착되었다. 이러한 음가와 표기상의 변화로 인하여 ‘土門’은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이를 몰랐던 조선의 지식인들은 두만강을 의미하는 ‘土門’과 『용비어천가』의 ‘투문’을 의미하는 ‘土門’을 혼동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혼동에 기반하여 정계비 설치 이후 두만강 대안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셋째, 정계비 설치 이전에는 조선이나 청 모두 ‘압록강—백두산—두만강’을 ‘天池發源說’에 입각하여 이해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해와 실제 현지지형과의 불일치가 목극등이 정계비의 위치 및 주변 수계를 잘못된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특히 백두산정계비가 설치된 곳은 두만강의 발원지가 아니었으며, 伏流하여 사실상 송화강의 지류로 들어갔다. 오히려 두만강의 발원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설치 직후 논란을 초래하였다.

넷째, 백두산정계비 설치 이후 일종의 국토상실 의식이 나타났고, 이러한 국토상실의 공백을 매우는 개념으로서 ‘土門江’과 ‘分界江’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들은 오해와 추론 내지 상상에 기초하고 있었다. 특히, ‘分界江’은 여진어(민주어)의 ‘麻(삼)’과 관련된 지명으로 판단되며, 경계를 나눈다는 의미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 분명하다.

칭으로부터 비교적 상세한 지도들이 도입되고, 19세기 중반을 전후하여 급증한 월경 이주자들을 통하여 정확한 지리적 정보들이 입수되자, ‘토문강’과 ‘분계강’ 개념은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19세기 중반 이후로부터는 자신의 생활터전을 지키기 위한 이주자들의 논리가 개발되기에 이르고, ‘토문강’과 ‘분계강’ 개념은 이 지역에 대한 국제정치적 역학관계와 맞물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국면에서도 조선후기의 토문강, 분계강 개념은 이른바 ‘間島領有權’에 대한 논리구성에 일정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지리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는 없었다. 정계비 수립 후 지리정보의 부재 속에서 형성되고, 오해와 상상에 기초하고 있는 개념들을 오늘날 이른바 ‘간도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인지, 필자로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 참고문헌

- 『康熙皇輿全覽圖』(北京, 外門出版社 影印本, 2007).  
『乾隆十三排圖』(北京, 外門出版社 影印本, 2007).  
『大東輿地圖』(서울, 月刊 山 影印本, 2004).  
『同文彙故』(國史編纂委員會 影印本, 1978).  
『萬機要覽』(民族文化推進黨 國譯本, 1967).  
『白頭山定界碑圖』(奎章閣 奎 26675).  
『北征錄』(申瀏 著, 朴泰根 譯註, 『國譯北征日記』,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盛京通志』(阿桂 等, 乾隆 13年, 1748).  
『盛京通志』(呂耀曾, 王河, 魏樞, 雍正 12年, 1734).  
『新增東國輿地勝覽』(民族文化推進黨 國譯本, 1969).  
『旅庵全書』(景仁文化史 影印本, 1979).  
『研經齋全集』(民族文化推進黨 影印本, 2001).  
『雍正十排圖』(北京, 外門出版社 影印本, 2007).  
『龍飛御天歌』(亞細亞文化社 影印本, 1972).  
『制勝方略』(朝鮮史編修會編, 1936).

『朝鮮王朝實錄』(國史編纂委員會, <http://sillok.history.go.kr>).

『欽定滿洲源流考』(阿桂 等, 乾隆 43年, 1788).

강석화, 「백두산정계비와 간도」, 『韓國史研究』 96호, 1996, 121~134쪽.

강석화, 「조선후기의 북방영토의식」, 『韓國史研究』 129호, 2005, 95~115쪽.

김기혁, 『朝鮮 後期 古地圖에 나타난 朝·淸·露 國境意識의 變化』, 부산: 釜山大學校 釜山地理研究所, 2006.

김지남(외 저)/이상태(외 역), 『조선시대 선비들의 백두산 답사기』, 서울: 혜안, 1998.

심혜숙, 『중국 조선족 취락지명과 인구분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유충걸·심혜숙, 『백두산과 연변조선족: 지리학적연구』, 서울: 백산출판사, 1993.

李康源, 「조선 초 기록 중 ‘豆滿’ 및 ‘土門’의 개념과 국경인식」, 『문화역사지리』 제19권 2호, 2007, 45~57쪽.

李燦, 『韓國의 古地圖』, 서울: 凡友社, 1991.

吉林省革命委員會外事辦公室編印, 『中朝·中蘇·中蒙有關條約·協定·議定書匯編』, 1974.

王其渠 編, 『清實錄: 鄰國朝鮮篇資料』, 中國社會科學院 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 1987.

牛平漢, 『清代政區沿革綜表』, 北京: 中國地圖出版社, 1990.

中國測繪史編輯委員會, 『中國測繪史』 第2卷, 北京, 測繪出版社, 2002.

### 국문 요약

이 논문은 조선후기 국경인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두만강, 토문강, 분계강이라는 개념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조선초기에는 豆滿江(두만강)과 土門(투문)이 뚜렷하게 구별되어 있었다. 여진어로 ‘투먼’은 두만강을 의미하였고, ‘투문’은 구멍, 샘, 복류, 협곡(水口; 石門) 등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서로 구별되는 단어들은 중국어의 음운적 한계로 인해 ‘tumen’으로 일괄 표시 되었으며, 이후 ‘tumen’은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1712년 정계비 설치 이후 조선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국토상실 의식이 나타났다. 그들은 조선 초 기록의 ‘土門’에 대해 재해석하기도 하고, 分界江이라는 개념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들은 오해와 상상의 산물이었으며, 특히 여

진어(만주어)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오늘날 이러한 조선후기의 논리에 입각하여 간도에 대한 영토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지리적 사실과 역사적 상상을 혼동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몇 가지 지명에 대한 고증을 통하여 이러한 결론을 정당화하고자 하였다.

● 투고일 : 2007. 7. 12.

● 심사완료일 : 2007. 9. 4.

● 주제어(keyword) : 두만강(Duman River), 토문강(Tomun River), 분계강(Bunkye River), 조선시대 국경인식(Definition of the Boundary in the Chosun Dynasty), 백두산정계비(Baekdusanjeonggyebi).